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15-31)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매일 변동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25%에서 50%로 오르더니, 유제품에 대해서는 250%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회되었다가, 다시 부과될지도 모릅니다. 아, 아니군요! 연기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전쟁 이전에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세계적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안, 암호화폐 등에 적응해야 합니다. 일부는 아직 코로나에서 회복 중입니다.

불확실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 1)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활력을 얻고 정보를 수집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 2)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 3) 또 다른 사람들은 걱정, 두려움, 불안감에 압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현재의 역사적 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1. 유례없는 참혹함 (15-22절)
2. 영적 미혹 (23-28절)
3. 놀라운 구원 (29-31절)

각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한 성경적 배경입니다. 이 사건은 고난 주간 화요일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마지막으로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의를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향합니다. 길을 가는 동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오릅니다. 감람산 정상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장엄한 성전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2)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분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종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다가올 일들에 대비하도록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 동안 그들을 인도할 관점과 성품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1-14절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흐름을 내다보며 가까운 미래(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와 먼 미래(예수님의 재림)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의 시대를 사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영적 미혹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재난이 발생하며, 제자들은 특정한 박해를 받을 것이며,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비전은 제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15-31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까운 사건인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다시 돌아가시며, 그 사이 시대에 있을 영적 속임수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시고, 마지막으로 먼 미래의 사건인 자신의 재림을 묘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에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 a. 과거 주의적 관점(Preterist View) :15-31절의 모든 예언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 b. 미래주의적 관점(Futurist View) : 15-31절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성취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 c. 과거-미래 복합 관점(Preterist-Futurist View) : 본문이 가까운 사건(예루살렘 멸망)과 먼 미래의 사건(예수님의 재림)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첫 번째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례없는 참혹함 (15-22절). 예수님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구절이 제자들의 질문(3절)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음란한 신성모독적인 더러움”, “비참한 고통을 가져오는 불경건한 것”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권하십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Antiochus IV Epiphanes)가 저지른 성전 모독 사건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분열된 그리스 제국을 통치한 그리스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제국(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뻗어 있음)이라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원전 167년에 그는 유대 성전에 그리스 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성전 제단에 돼지와 다른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유대 신앙을 말살하고 그것을 그리스(헬레니즘) 문화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대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힐 끔찍한 일을 예언하기 위해 다니엘의 말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일을 인용하셨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공포 통치 하에 일어난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사는 제자들에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항상 침략군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험준한 지형은 추격을 어렵게 만들었고, 동굴은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겂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

왜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을까요? 1세기 이스라엘의 집들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더운 저녁에 시원한 거실 역할을 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 귀중품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움켜쥐는지 생각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겂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 겂옷을 챙기려고 할까요? 겂옷은 추운 밤에 담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분명합니다: 짐을 챙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기내 반입 가방조차도! 그저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행동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재난이 닥치면, 임신부나 젖먹이를 돌보는 여성들이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Sophie Marie의 사진) 또한, 재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행하기 가장 힘든 시기이며, 안식일에는 성문이 닫혀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명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라, 도망하라, 내려가지 말라, 뒤돌아서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쌓입니다: "없었고, 없으며,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가장 큰 환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일 것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후, AD 70년 4월 유월절 기간에, 장차 황제가 될 티투스 장군과 그의 50,000명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도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과 유대, 갈릴리, 그리고 이두매에서 온 피난민들로 인해 인구가 크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기근,야만, 학살, 전염병, 그리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피신해 있던 도시와 성전을 조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군기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 일곱 가지의 등대, 성전 기구들, 그리고 율법 두 루마리(티투스 개선문 부조)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 안에 가둔 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abomination of desolation)이었습니다!

이 유대-로마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70,000명의 유대인 노예와 성전에서 약탈한 금은 로마에 콜로세움을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콜로세움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0년 후, AD 8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약 65,000~70,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 D.A. 카슨(D.A. Ca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사상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스탈린 치하에서 2000만 명이 목숨을 잃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처럼, 한 도시의 인구 대부분이 이토록 철저하고 고통스럽게 학살당하고 노예로 팔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D.A. Carson, 『마태복음』 주석)

저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더 먼 미래의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도 성취될까요? 이것이 역사상 두 번 성취된다는 '이중 성취 예언'의 한 예입니까?

22절 그 환난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서는 "택하신 자들", 즉 그분을 따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참혹한 날들을 단축하셔서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이러한 공포의 날들까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영원히 군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AD 70년 로마 군대의 포위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봅시다. 23절의 첫 단어 "그때에"(Then)는 장기간의 시간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시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반적인 환난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인 (2) 영적 미혹(23-28절)의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평행 본문에서는 이 시기를 "이방인의 때"라고 설명합니다.

-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1)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26절은 다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주제를 다룹니다 (4-5절 참조).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권위 있게 말하며 미래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주장하는 어떤 권위자들을 따르

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영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3. 또 다른 예수님을 제시하는 사람들 (예: 역대 가장 발전된 영적 존재로 여겨지는 영매적 그리스도, 만물에 내재하는 범신론적 그리스도)
4. 교회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람들
5.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메시아적 지도자들은 종종 거짓 예언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 있게 광야에서 나타난 인물을 가리키며, "기성 체제 밖에서 온 자"라고 주장하거나,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내세웁니다.

어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인간 이상의 어떤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매(스피리티스트)들은 조상들과 대화한다고 주장하며, 신체적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거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라고 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예수,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는 영적 억압, 우울, 깨어진 관계, 정신적 혼란 – 즉 영혼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15-16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 그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4:2-3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가 오리라 하였거니와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25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
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고 은
밀한 소수의 집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개된 복음이며, 특정
한 내부자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번개처럼 명백하고, 공개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
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무도 번개가 어디에서 치는지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동쪽에서 서쪽까
지 온 하늘이 환하게 빛납니다.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
잡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를 보면, 땅 아래에서 무언가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만,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분명하고도 명
확한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결코 혼동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부분으로 전환하시며, 저는 이를 (3) 놀라운 구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
다.

"즉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이 환난의 기간이 끝난 후(예수님께서서 4-14절, 23-28절에서 말씀
하신), 온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일 것입니다.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우주적
재앙을 묘사하십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환난 후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듯이 사라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
면, 요한계시록 6:13-14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
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
게는 격려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놀랍다"라는 말에 궁극적인 느낌
표를 찍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 표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참조: 마 16:27; 26:64).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 즉 온 인류가 애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를 갈라놓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니엘 7:13-14를 인용하십니다.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고난의 시대를 끝내실 것입니다(살후 1:7-10; 계 19:11-16). 악은 완전히 멸망하고, 예수님의 온 우주적 통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옛 창조 질서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사 65:17; 뵤후 3:13; 계 21:1).

예수님의 재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나요? 확실해요?"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온 세상에 즉시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높으신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첫 번째 오심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온 땅과 그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져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온 땅에서 모을 것입니다—사방에서,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제자도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끝이 가까워지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시대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1. 주권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심
2. 제자들을 위해 고난을 제한하심
3. 미리 경고하셔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심
4. 재림하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심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1-14절은 제자들에게 침착하고,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5-31절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끝이 올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3.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십시오.
4.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5. 모든 종족, 언어, 모든 민족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십시오!!